

임문영 부위원장,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박사 면담, 보건의료분야 AI 협력방안 논의

- 국가AI전략위원회, 보건의료분야 AI 정책방향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12일(금)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HO WPRO)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3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체계 구축, 전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 보건안보 위협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번 면담에서 WPRO 사무총장 Dr. Saia는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AI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외딴지역 의료 보급 문제 해결에 AI 활용이 절실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서태평양 지역에도 AI가 활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선도국가로서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서태평양의 소외된 지역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거버넌스,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실용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문영 부위원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좋은 사례를 만든다면 서태평양지역의 보건의료 혁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 장	김보경 (02-2224-4121)
		담당자	사무관	이성애 (02-2224-4144)

□ 사무처 개요

- 영문명칭: WPR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 전 세계 6개 WHO 지역사무소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보건 증진과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반자 치적인 국제기구
- 소재지: 필리핀 마닐라
- 지역사무총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
- 구성(회원국): 대한민국, 호주, 중국, 일본 등 38개 국가 및 지역

□ 주요 기능 및 역할

-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대응: 말라리아, 결핵, 콜레라 등 과거의 질병퇴치 노력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및 만성질환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병 예방 및 통제활동 수행
- 보건 시스템 강화: 1차 보건의료 체계 구축 지원, 보건안보 위험 대응, 디지털 헬스 등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지원 및 자문 제공
- 환경 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승인했으며, 서울에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
- 보건 안보 및 비상사태 대비: 초기 위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정보 네트워크 유지
- 전통의학 지원: 전통 의학의 발전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 표준 용어 및 질병 분류 개발 지원